

## 강진 '군민과의 대화' 발빠른 소통

오는 17일까지 11개 읍면 주민 현장 목소리 청취

### 이승옥 군수와 신전면민과의 대화

2020. 1. 9. (목)

강진군



강진군이 9일 신전면과 도암면을 시작으로 11개 읍면을 순회하는 군민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발 빠른 소통 행보다.

새해를 맞아 시작된 군민과의 대화 첫 장소인 신전면에서는 송천마을 상습침수지역 복토작업, 용정마을 안길 포장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의부터 군정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오는 17일까지 11개 읍면 주민들의 실질적인 애로·건의사항 등 생생한 목소리가 현장에서 오갈 예정이다.

이번 군민과의 대화는 읍면 주요 산업시설 및 농업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군민들과의 격식 없는 대화를 통해 새해 강진군의 비전을 제시하

고, 당면 문제의 향후 개선방향 등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지난 해 100%분양에 성공한 강진산단을 더욱 활성화시켜 '취업 1번지 강진'으로 한 발 더 도약하고, '2020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를 성공시켜 스포츠와 관광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이번 군민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여민동락의 정신을 되새기며, 각계각층의 군민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한 발 더 가까이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군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진=한홍수 기자

## 전광투데이

2020년 01월 10일 (금)

## 강진군 '군민과의 대화', 새해 가장 빠른 첫 걸음 내딛어

오는 17일까지 11개 읍면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 청취



지난 9일 오전 9시 30분경, 이승옥 강진군수가 신전면 군민과의 대화 일정에 앞서 신전면 수양리에 위치한 오명택 씨의 딸기 재배농가를 방문해 딸기 양액재배 시설을 둘러보며 재배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다.

전남 강진군이 9일 신전면과 도암면을 시작으로 11개 읍면을 순회하는 군민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발 빠른 소통 행보다.

새해를 맞아 시작된 군민과의 대화 첫 장소인 신전면에서는 송천마을 상습침수지역 복토작업, 용정마을 안길 포장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의부터 군정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오는 17일까지 11개 읍면 주민들의 실질적인 애로·건의사항 등 생생한 목소리가 현장에서 오갈 예정이다.

이번 군민과의 대화는 읍면 주요 산업시설 및 농업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군민들과의 격식 없는 대화를 통해 새해 강진군의 비전을 제시하고, 당면 문제의 향후 개선방향 등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지난 해 100%분양에 성공한 강진산단을 더욱 활성화시켜 '취업 1번지 강진'으로 한 발 더 도약하고, '2020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를 성공시켜 스포츠와 관광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이번 군민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여민동락의 정신을 되새기며, 각계각층의 군민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한 발 더 가까이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군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군민과의 대화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10일 마량면과 대구면, 13일 칠랑면과 군동면, 15일 읍전면과 병영면, 16일 작천면과 성전면, 17일 강진읍 순으로 진행된다.

김요중 기자



## 강진군, 11개 읍·면 '군민과의 대화'

강진군이 9일 신전면과 도암면을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11개 읍·면을 순회하는 군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사진> 이번 군민과의 대화 첫 장소인 신전면에

서는 송천마을 상습침수지역 복토작업, 용정마을 안길 포장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의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강진/이봉석 기자 lbs@namdonews.com

## 강진, 한옥 관광브랜드화 '박차'

### 관광콘텐츠 내실화 도모

강진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한옥 숙박시설대상 '2020년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은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발전할 수 있는 전통한옥을 한국의 대표적 전통문화체험 숙박시설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공모사업이다.

군은 올 한해 동안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에 총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해 체험프로그램과 전통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지역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관광콘텐츠를 제공하게 된다. 어른들은 옛 추억을 떠올리고 아이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며, 외국인에게는 한국의 옛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이진묵 기자 sa4332252@

## 이승옥 강진군수

### 읍·면 순회 군민과의 대화

이승옥 강진군수는 10일 마량면과 대구면을 잇따라 방문해 새해 군민 화합과 소통을 위한 2020년 읍·면 순회 군민과의 대화를 갖고 군민들의 이야기를 청취할 예정이다.



## 강진군 '군민과의 대화', 새해 가장 빠른 첫 걸음 내딛어

2020-01-09 15:18 노해섭 기자

오는 17일까지 11개 읍면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 청취



전남 강진군이 9일 신전면과 도암면을 시작으로 11개 읍면을 순회하는 군민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발 빠른 소통 행보다.

새해를 맞아 시작된 군민과의 대화 첫 장소인 신전면에서는 송천마을 상습침수지역 복토작업, 용정마을 안길 포장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의부터 군정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오는 17일까지 11개 읍면 주민들의 실질적인 애로·건의사항 등 생생한 목소리가 현장에서 오갈 예정이다.